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장수인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헨츠빌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	파견기간	2012.8.23 – 2013.5.24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휴스턴에서 1시간 좀 넘게 차를 타고 가면 헨츠빌이라는 곳에 Sam Houston State University가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고, 설립된 지 오래되었지만 시설은 매우 깨끗하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이고 교환학생이나 외국인에게 호의적입니다. 캠퍼스 내에 기독교인 모임이나 스페인어 동아리와 같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p>
2012-2학기 수업	<p><b>General Zoology, General Zoology Lab</b> : 이론을 듣기 위해서는 실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일반생물학에서 동물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기초적인 수업입니다. 교양 필수과목이라서 많은 교수들이 이 수업을 가르칩니다. 교수마다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실험은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가르치는데, 다양한 동물들을 해부하고 각 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공부합니다. 과제도 많고 암기할 것도 많아서 이론 수업보다 더 힘들었습니다.</p> <p><b>Contemporary Biology, Contemporary Biology Lab</b> : 이 수업도 역시 실험 수업이 의무였습니다. DNA, 암 등과 같이 현대에 대두되는 생물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General Zoology보다는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실험도 General Zoology Lab보다 쉽고 유익했습니다.</p> <p><b>Elementary Spanish I, Elementary Spanish I Lab</b> : 미국 대학생들은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많이 선택합니다. 영어와 단어도 비슷하고 어순도 비슷해서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었습니다. Lab은 일주일에 1시간인데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과제를 하는 시간입니다.</p> <p><b>Jazz Dance Technique I</b> :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수업이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Dance major나 Theatre major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새로운</p>

	<p>것을 배우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학기 말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습니다.</p> <p><b>Wgt Train &amp; Phy Conditioning</b> :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수강하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계획표 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p>
2013-1학기 수업	<p><b>Introductory Cell Biology, Introductory Cell Biology Lab</b> : 마찬가지로 실험 수업은 의무입니다. 세포생물학의 기초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한 단백질을 정해 그것에 관한 레포트를 논문 형식으로 쓰는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야 해서 힘들었지만 완성하고 나서는 보람 있고 뿌듯했습니다. 실험 시간에는 조별로 이론 수업에 관련된 활동을 한 후 발표를 하였습니다.</p> <p><b>Forensic Science</b>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는 Criminal Justice major가 제일 유명해서 CJ수업을 한 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CJ과목 중에 생물 분야와 관련이 있는 Forensic Science 수업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법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p> <p><b>Elementary Spanish II, Elementary Spanish II Lab</b> : 스페인어 문법이 1학기 때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헷갈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흥미를 느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b>Pilates - Mat Work</b> : 고난이도 동작을 배우기보다는 호흡하기 같은 기초적인 동작을 배우면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필라테스를 배웁니다. 유연성을 기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늦게 출국해서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hi Alpha라는 기독교 단체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을 담당하는 International Office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담당자는 Jesse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한 나라를 정해 그 나라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Canoeing, Drawing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6-7월에는 4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8월 말에 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과 비슷하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실내는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어서 감기가 걸릴 정도로 춥습니다. 여름에도 실내에서 입을 얇은 긴 팔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헌츠빌이 텍사스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1월에는 한국의 겨울만큼은 아니었지만 가끔 너무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 옷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안전	<p>University Police Department가 있어, 캠퍼스 내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지거나 예측되면 문자로 항상 알려줍니다. 학교 홈페이지 Katsafe에 휴대폰 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여 문자를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감옥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만큼 치안 유지가 더 잘 되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O ) 기타( )</p> <p>학교 기숙사는 너무 비싸서, 캠퍼스 밖이지만 학교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Arbors of Sam Houston이라는 아파트에서 10개월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운 좋게도 3인실을 신청했는데 3인실이 다 차서, 같은 가격에 2인실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룸메이트를 잘 만나서 별 탈 없이 보냈지만, 룸메이트를 잘 못 만나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가재파티, 할로윈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피스 안에 작게나마 헬스장, 수영장, 컴퓨터실, 텔레비전, 당구대가 있는 등 다 좋지만, 일 처리가 매우 늦다는 게 단점입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O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O ) 기타 ( )</p> <p>주로 HEB(grocery store)나 Walmart에서 음식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거나 대접할 때는 휴스턴에 있는 H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Meal Plan은 비싸서 신청하지 않고, 샌드위치나 과일 등을 학교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는 학교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빵이나 피자, 면 종류들을 주로 먹기 때문에, 집에서는 밥을 자주 해먹었습니다.</p>
<p>교통</p>	<p>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외에 다른 곳을 갈 때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HEB까지 걸어갈 순 있지만 장 본 것들을 들고 다시 집으로 걸어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차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인천→휴스턴 : 약 100만원 휴스턴→뉴욕 : 약 15만원 뉴욕→인천 : 약 70만원	출국할 때는 인천에서 도교를 거쳐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교환학생을 마친 후에는 뉴욕에 며칠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Fees	Transcript Fee : 약 15000원	등록금을 순천향대학교에 내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특별히 냈던 fee는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냈던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료	University Health Insurance : 약 110만원	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숙소	Monthly Rent (+Utility Bill) : 약 50만원	방 2개, 화장실 2개인 캠퍼스 밖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식비	장보기 (한 달) : 약 20만원 외식 (한 달) : 약 10만원	한 달에 3-4번 정도 장을 보러 가는데 한 번에 40-50불 정도 지출했습니다. 밖에서 사먹을 땐 한 번에 10불 정도 듭니다.
교통비	0원	학교가 가까워서 교통비는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책값	스페인어 책 : 약 20만원 실험 책들 2권 : 약 10만원	책값이 한국보다 매우 비싸서, 대부분의 책들은 친구들이나 도서관에서 빌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 수업이나 실험 수업들을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 책을 사야 했습니다.
기타1	쇼핑 : 약 100만원	
기타2	여행 : 약 300만원	
합계	1500만원 내외	

## 5. 출국 전 준비사항

- <http://www.apartmentfinder.com/>이나 <http://www.apartments.com/>에서 zip code (77340)을 입력하면 캠퍼스 밖 아파트 목록과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ratemyprofessors.com/>에서 각 학교 교수들의 순위, 점수, 평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교수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씨티은행 국제체크카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어느 ATM이건 출금수수료가 무조건 2000원만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씨티은행 계좌로 생활비를 넣어주시면 학교 ATM에서 돈을 인출하고 Bank of America 체크카드에 입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씨티은행 국제체크카드는 미국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잃어버릴 때를 대비하여 국제현금카드도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Bank of America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겠지만 학교 근처에 있던 BOFA 지점이 없어져서, 차를 타고 은행에 가야 합니다.
- 미국 대학에서 들은 과목을 일선이 아닌 전공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학과 교수님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를 먼저 학과장님께 여쭙보길 바랍니다. 학점 인정 신청서를 학기가 끝난 후에 한국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면 졸업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한국보다 책값이 매우 비싸고 한국에 돌아갈 때 책이 무거워서 대부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한 권당 10-20만원 하는 새 책을 사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여하거나 중고로 구입합니다. 수업 시간에 책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PPT로 수업하면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부분만 책을 빌려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어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책에 직접 필기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새 책을 꼭 사야 합니다. 수업 첫 날 출석하여 Syllabus를 확인하면 책을 사야 될지 안 사도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작년 이맘때쯤 저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벗어나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는 저에게 교환학생으로서의 10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길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기엔 내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가서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걱정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8월 23일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걱정들은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10개월 동안 살 숙소 앞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나는 룸메이트가 마중 나와 짐을 함께 옮겨주고 말도 걸어주고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환학생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수업만큼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녹음해서 복습하며 공부했습니다. 녹음한 내용을 여러 번 듣다 보니,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들도 나중에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만 골라서 들으며 복습했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녹음기에 의존하게 될까 봐 녹음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녹음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수업을 들으러 가서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수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정장을 입고 수업을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학생들이 교수님을 어려워하고 거리감을 느끼는데, 미국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 주제에 관련된 경험이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기도 하면서 학생들과 토론하며 친밀하게 수업을 합니다. 또한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확인할 정도로 메일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공 수업들은 대부분 시험을 한 학기에 3-5번씩 봅니다. 과제도 따로 있고 퀴즈도 종종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절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는 한국 전공 수업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한 학기 내내 시험 공부를 하느라 쉴 틈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한국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미국 학생들은 공부할 땐 제대로 공부하고 놀 땐 제대로 놀 줄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놀 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교환학생 두 학기 모두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보면, 영어 실력이 엄청 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을 친구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생활을 몸소 체험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자유롭고 정말 큰 나라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말하듯이,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영어 공부를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사귀 친구들 모두 매우 친절하고 외국인에게 호의적인 것을 보고, 제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영어와 생활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매우 소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전공과목뿐 아니라 스페인어, 필라테스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얻은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WHO에서 일하고 싶은 제 꿈에 한 단계 더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길 것만 같았던 교환학생 기간을 벌써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수학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떠날 분들도 인생에 있어 단 한 번 뿐인 교환학생 생활을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다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tate Park에서 카누 타는 모습



풋볼 경기 하기 전 공연



SHSU 도서관 가는 길



할로윈 데이 때 호박 풍선장식



휴스턴 로데오 축제에서 본 로데오 경기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인물 동상인  
Sam Houston 동상